

# 남원시 의료급여사업 개선

### 관리사 현장방문·전화상담으로 대상별 특성 고려 맞춤형 사례관리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후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 지난 3월말 현재 5,8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와 약물관리 의존자, 장기입원자가 증가로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의료급여 일수, 이용의료기관 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관리사가 현장방문과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를 위해 집중관리군·장기입원자·신규수급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방문교육,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입원의료기관·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및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당뇨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은 제1형당뇨병 환자에서 제2형당뇨 및 임신성당뇨까지 확대되고 지원물품 역시 혈당 측정 검사지에서 체혈침과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도 추가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위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총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지원금이 각각 인상되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다태아 70만원)과,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각각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노인에게는 틀니를, 만

20세 이상에게는 치석제거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1.2종 모두 소액(1~2천원)을 부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남원시는 기타요양비 95건에 4천4백만원, 장애인보장구 59건에 5천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13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을 2,394명에게 7천만원, 본인부담금 941건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10,716건에 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감염병·뇌염 예방 방역활동 돌입

### 9월말까지 비상근무

임실군은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공포와 최근 전국에 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방역비상근무 기간을 설정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24시간 유지한다.

또한, 보건의료원 및 읍·면에서 보유한 방역소독장비(59대) 일제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방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병매개체인 모기유충 서식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사용한 방역활동에 나섰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오는 10월까지 각종 감염병 매개 해충의 구제를 위해 주택가 취약지역, 공공장소, 행사장에 대한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임실군은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공포와 최근 전국에 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병행 실시하고 읍·면소재지 주택밀집지역 정화조, 늪 지역을 대상으로 파리, 모기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하절기 감염병 발생의 주 매개체인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에 총력을 기울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남원체력센터 학생건강관리 앞장

### 관내 학교들과 협업 통해

국민체력100 남원체력인증센터가 관내 학교들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체력인증센터는 학교 건강관리평가(PAPS)와 인증센터 체력측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과학적이고 세분화 된 개별 체력수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센터는 남원제일고, 남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출장측정에 나섰으며, 오는 18

일 남원 용성중학교 학생들을 측정한다.

인바디, 협응력 검사, 약력측정, 체공 점프검사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체력측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체력인증센터(633-7330)는 출장측정 외에도 춘향골체육관 1층 내에 있는 인증센터를 방문하여 측정을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리산권 관광객 유치 해외마케팅 사업 박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 본부장 조지환)은 올해도 지리산권역의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구례), 경남(하동, 산청, 함양)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요우커·旅客)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상하이국제무역중심전시관에서 개최되는 '2016상하이세계여유박람회(World Travel Fair, 이하 WTF)'에 참가하여 지리산권 관광자원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지 여행사와의 적극적 세일즈를 통해 여행상품과 유치 및 일반관광객 대상 B2C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상하이박람회의 경우, 지난 2015년에도 참가하여 여행사 대상 세일즈 및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리산권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지리산권 WTF 세일즈홀에서도 전남



북과 경남이 어우러져 있는 지리산권의 특성을 잘 살려 한국의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색과 매력을 연계한 상품이 현지 여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직접 현지답사를 다녀가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박람회에서도 급증하는 중국 FIT(개별 관광객)들의 수도권 외 숨은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니즈와 잘 맞는 지리산권의 청정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필하는 세일즈 전략을 세우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선사업 진행

고창군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읍·면에서 추천한 120동 중 5월 현재 60여동을 보수 지원했으며 올 9월 사업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시작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높은 수요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355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립농업기술원

### 남원시 농업정보센터 앱 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서는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남원시농업정보센터 앱'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남원시농업정보센터 앱' 개편은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하였으며, 최신농정정보, 병해충 및 농약정보 등을 보강하여,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가 병해충 검색 및 처리방안까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남원시농업정보센터 앱'은 농업인들이 '감소농'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일뿐만 아니라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갖가지 생생한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남원시농업정보센터 앱'을 다운로드 후 홍보하고 있으며, 앱을 통해 다양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남원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 황토멜론 육성 업무 협약

고창군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허건량)이 명품 황토멜론 육성을 위한 현장실증과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7일 고창농업기술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협약을 통해 멜론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충밀도 감소에 효과적인 메리골드 혼식재배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선충밀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해 새로운 농업기술도입과 현장적용과제 실증 등 농업발전을 위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실증과제에 참여한 황토멜론연구회 정경열 회장은 "고창 황토멜론은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명성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적 선충방제 기술도입으로 고창황토멜론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다중시설 화재진압

남원시는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기간(5.27~5.29)을 맞아 공설시장에서의 화재 발생을 가상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진압훈련"을 17일 실시하였다.

이환주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10개부서와 8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설시장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각 부서, 기관·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토론했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전국의 40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난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남원시 금동에 위치한 공설시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일부가 전소 및 붕괴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공설시장은 평상시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남원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많아 상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남원=유영철 기자